

## 바르셀로나, 공공공간 그늘 구조물 모델 실험

<https://ajuntament.barcelona.cat/premsa/2024/07/29/barcelona-installa-tres-sistemes-innovadors-per-crear-ombra-a-lespai-public/>



**트렌카디스의 그늘에서**  
출처: BIT 해비타트 홈페이지. <https://bithabitat.barcelona/es/proyectos/ombra-del-trencadis/>(검색일: 2024.8.29.)

스페인 바르셀로나시가 광장 등 공공공간에 그늘을 제공하기 위한 구조물 모델을 발굴하고 시범 적용에 나선다. 바르셀로나시와 BIT 해비타트는 지난해 6월 공공장소에서 임시 그늘을 조성할 수 있는 구조물 프로토타입을 공모하는 도시혁신 챌린지를 진행한 바 있으며, 여기에서 우수한 세 가지 모델을 실제로 설치하고 성능을 테스트할 방침을 세웠다. 공모전을 통해 도시 회복력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도 새로운 솔루션을 제안받고자 하였으며, 특히 식재가 불가능한 공간에 계절에 따라 설치·해체할 수 있는 디자인을 모집하였다.

‘오아시스, 모두를 위한 그늘(Oasis, Ombra per a tothom)’은 태양광을 반사하도록 접힌 형태의 알루미늄 조각을 케이블로 연결하여 구조 위에 차양으로 덮는 디자인이다. 공간 규모에 따라 쉽게 구조물을 키우거나 줄여 설치할 수 있으며, 구성요소를 최소화하여 설치에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. ‘그림자의 바다(Mar d'ombres)’는 온실의 기본 구조를 따 모듈을 설계하고 다양한 공공공간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모듈의 크기를 제안하여 범용성이 높고 조립·해체가 쉬운 것이 특징이다. ‘트렌카디스의 그늘에서(A l'ombra del trencadis)’는 친환경적인 소재인 목재를 적극 활용한 디자인이다. 조립식 패널과 기둥 모두 목재로 만들어지는데, 가볍고 재활용에 용이한 소재일 뿐 아니라 콘크리트보다 열을 15배 덜 흡수한다.

시는 지역 공원 등에 세 개 구조물을 설치하고, 4개월 동안 그 효과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. 일사량과 반사율, 표면 온도, 풍속, 열영역 위험도, 유지·관리에 대한 항목과 함께 이용자 쾌적성과 시간대별 이용자 수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게 된다.

시는 이번 실험이 기후변화 시대에 시민,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장하고 도시의 열섬효과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. 나아가 시민 활동이 일어나는 새로운 사회적 공간을 창출할 것이라고 프로젝트의 의의를 강조하였다.



**오아시스, 모두를 위한 그늘**  
출처: BIT 해비타트 홈페이지. <https://bithabitat.barcelona/es/proyectos/oasis/>(검색일: 2024.8.29.)



**그림자의 바다**  
출처: BIT 해비타트 홈페이지. <https://bithabitat.barcelona/es/proyectos/mar-dombres/>(검색일: 2024.8.29.)